■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91-598.
http://doi.org/10.17948/kcs.2023..99.591

『비소기(悲笑記)』 해제

김준형(金埈亨)*

1. 기본정보

- **판　　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卷1冊(缺帙) : 12行字數不定, 無魚尾; 27.5 × 19.0 cm
- **주기사항** 表題: 悲笑記
  卷首題: 비소기
  印: 在山樓蒐書之一, ま邊滿
  藏書記: K. Mayema Jan. 7 1892
- **현 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4-225

2. 안내정보

20.0×27.6㎝의 한글 필사본으로, 총 23장이다. 정갈한 궁체로 쓰여 있다. 표제는 '悲笑記 坤', 권수제는 '비쇼긔 권지이'로 되어 있다. 본래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책은 그 중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낙질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소위 국문장편소설의 전통을 이은 가문소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는 유일본이다.

* 부산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3. 편저자 사항

저자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정갈한 한글 흘림궁체인데다 고급 도침지에 필사한 소설이라는 점을 통해 볼 때, 이 책은 본래 궁중에서 향유되었던 책일 개연성이 높다. 또한 책에 쓰인 종이 재질 및 표지 쓰임 방식 등이 주로 18세기에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소기〉는 18세기 중후반을 전후해서 생산된 소설이라고 잠정할 수 있다.

4.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2권 2책 중 그 둘째 권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가문소설이 보통 전반부에서는 가문의 외적 창달을, 후반부에서는 내적 정비를 주로 다룬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일실된 1권의 내용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가문의 외적 창달을 위주의 내용일 개연성이 높다. 일실된 전반부의 내용은 제외하고 남겨진 내용[2권]만 충실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다른 가문소설 일반과 유사하지만, 일부 파격적인 대목도 있다.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니, 비교적 상세하게 그 줄거리를 제시한다.

소운경이 현관 벼슬을 그만두고 첩 열경과 함께 고향 절강으로 내려간다. 열경은 여의라는 계집종도 데리고 온다. 고향에 돌아오니 정처인 윤소저는 이미 아들을 출산해 있었다. 운경이 어머니께 열경을 뵈이니,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무렵 윤소저의 양부모 염상서는 귀양을 가게 된다. 한림학사인 운경의 동생 소중경이 극력 신구했지만 구하지 못한다. 윤소저는 자못 슬퍼하고, 운경은 염상서를 전송하고 돌아온다.

얼마 후 윤소저는 다시 아들을 낳지만, 열경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때 마침 집을 찾아온 중경은 열경을 보고 요물이라 생각하며 집안이 평안하지 못할 것을 짐작한다. 열경은 틈을 봐서 윤소저를 모해할 일을 꾸미려 한다. 윤소저의 시비 열애가 그 낌새를 알고 윤소저에게 고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는다. 또한 그보다 앞서 윤소저는 아이들이 토끼 새끼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토끼를 구해 수풀로 돌려보낸다.

한편 열경은 여의를 통해 용력을 갖춘 비애라는 여인을 추천받는다. 열경은 비애를 남자로 변장시켜 '윤소저의 방에 숨어 자는 척하다가 기척이 있으면 담을 넘어 달아나라'고 지시한다. 다음날 비애가 윤소저의 방에 들어가자, 열경은 잠을 자고 있는 운경을 깨운다. 그리고 굳이 종들을 물리친 채 운경을 이끌고 윤소저의 방으로 간다. 그 때 인기척을 느낀 비애가 급히 달아난다. 이를 본 운경은 윤소저를 의심한다. 열애와 윤소저는 열경의 간계인 줄 알지만 발명할 길이 없어 밤새 눈물만 흘린다. 다음날, 운경은 소상서 부부에게 아뢴 후, 윤소저와 두 자식을 쫓아낸다. 그런데도 열경은 두 아이가 후환이 될까 하여 집에 두었다가 죽이기로 하고, 윤소저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는다. 쫓겨나 갈 곳 없는 윤소저는 마침 근처에 사는 한 노파에게 구제된다. 윤소저는 그 곳에 머물려 했지만, 그 날 밤 꿈에 부친이 나타나 즉시 떠날 것을 종용한다. 윤소저는 몽사를 헤아려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는 열경이 보낸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다.

윤소저가 찾아간 고향집은 병화로 남은 게 없었다. 이에 부모의 묘소에 나아가서 죽으려 했지만, 열애가 말린다. 윤소저는 그 날 밤 꿈에서 모부인을 만난다. 모부인은 이게 다 운수라 하고, 내일은 윤소저가 전에 구해주었던 토끼를 따라가도록 한다. 이튿날 모부인의 말처럼 토끼를 따라가니, 그곳은 양중서 댁이었다. 남복으로 개착한 윤소저는 양중서의 물음에 윤극렴의 아들이라 대답하지만, 윤중서는 거짓이라 한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그 사연을 말한다. 의아한 부인이 나와 윤소저를 본 후 그녀가 여자임을 눈치 챈다. 마침내 양중서는 윤소저를 장녀로 삼아 자신의 무남독녀인 혜랑을 맡긴다.

한편 운경의 집 시비들은 열경의 허물을 기찰한다. 어느 날 시비들은 윤소저의 작은 아들을 안고 독이 든 병을 가지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는 여의를 발견해 그녀를 쫓아간다. 그리고 여의가 아이에게 독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시비들이 내달아 그것을 빼앗아 맏아들에게 넘긴다. 맏아들이 빼앗은 독을 개에게 먹이자, 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마침 중경과 운경이 함께 있을 때, 맏아들이 그 사연을 아뢴다. 놀란 운경이 여의를 심문하니, 여의는 열경이

시킨 일이라고 자백한다. 이에 운경은 여의를 죽인다. 그리고 열경의 부친을 불러 열경을 데리고 떠나도록 한다. 또한 운경은 윤소저를 내친 것을 후회하고 마침내 맏아들에게는 소국효, 작은 아들에게는 소국례라고 이름도 지어준다. 열경의 부친은 차마 내쳐진 딸을 죽이지 못해 산속에 버려두고 간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열경의 자색을 탐내 첩으로 삼지만, 열경은 고달픈 생활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을 매어 죽는다.

수년 후, 국효는 모친을 찾겠다며 종 충동을 데리고 길을 떠난다. 마침 운남 지방에서는 호무적이 이끄는 도적 무리가 일어난다. 조정에서는 이를 평정하기 위해 장영과 조철국을 보내지만, 둘 다 호무적에게 죽임을 당한다. 황제가 몹시 걱정하자 소정국이 나선다. 소정국은 중경의 아들이자 마세룡의 외손으로, 아명은 연당인데, 황제가 직접 그의 이름을 흥국이라고 지어준다. 흥국이 출전하자, 어머니 마부인 역시 시비 운향과 함께 남복으로 개착하여 출정한다. 흥국이 만류하지만 마부인은 개의치 않고 전장으로 나아간다. 흥국이 마부인과 함께 나서서 호무적과 싸우지만 승부를 결치 못한다. 본진으로 돌아온 마부인은 흥국에게 계교를 말한다. 이튿날, 마부인은 일부러 패한 척하고 달아나고, 이를 쫓던 호무적은 흥국에게 사로잡힌다. 전쟁이 끝나자, 마부인과 운향은 급히 집으로 돌아간다.

윤소저는 소장군이라는 말을 듣고 열애를 보내 알아보게 한다. 열애가 가서 보니 소장군은 곧 연당(아명)이었다. 흥국이 열애를 보고 윤소저가 있는 곳을 확인한다. 한편 소국효를 모시고 천하를 떠돌던 충동은 중풍에 걸려 죽는다. 국효는 충동의 가묘를 만들고 슬퍼하던 중, 관병의 승전 소식을 듣는다. 이에 구경에 나섰다가 흥국과 만난다. 흥국이 윤소저가 있는 곳을 말해줌으로써, 국효는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한다. 황제는 흥국을 맞이한 후, 호무적의 목을 베어 군문에 달고, 모든 군인을 상사한다. 소씨 집안에도 벼슬을 돋운다.

윤소저 소식을 들은 소상서 내외와 운경은 국효에게 급히 윤소저를 모셔오게 한다. 그러나 윤소저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에 소상서는 운경이 직접 가서 윤소저를 데려오게 한다. 운경이 직접 찾아가자, 양중서 부인은 그를 윤소저의 방에 데려간다. 윤소저는 자신을 내친 운경을 탓하고, 운경은 이에

대해 사과한다. 며칠 후, 양중서 내외는 자신의 딸 혜랑과 국효의 혼사를 의논하여 성혼시킨다. 소상서는 양중서 내외도 절강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근처에 집을 얻는다.

윤부인은 자신을 도왔던 노파의 죽음을 알고 그 자식에게 재물을 주어 정성껏 제사 지낸다. 국효는 집 근처에 충정을 영장하고, 그 후손을 찾아 제사가 그치지 않게 한다. 공이 많은 열애는 좋은 서방을 얻어 성혼시키고, 집과 재산을 주어 편히 살게 한다. 윤부인은 친부모의 묘를 절강으로 안장한다.

5. 서지적 가치

이 책은 첫 면 상단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96-1842)의 '在山樓蒐書之一'이라는 원형 장서인이, 그 옆에는 'ま邊滿'이라 쓰인 원형 장서인이 나란히 찍혀 있다. 마지막 장에는 스탬프로 찍은 'K. Mayema / Jan. 7. 1892'라는 영문 인기(印記)가 남아 있다. 이들 인기(印記)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지낸 언어학자 마에마 교사쿠의 장서인 표시로, 이 책 역시 동양문고에 소장된 마에마 컬렉션 중 하나임을 확인케 한다. 스탬프 인기를 통해 이 책이 마에마 교사쿠에 의해 1892년 1월 7일에 수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조선에 온 때가 1891년 게이오[慶應] 의숙을 졸업한 직후임을 고려하면, 이 책은 조선에 오자마자 구입한 자료들 중의 하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 책 마지막에는 후기도 남아 있다. "믈읫 사ᄅᆞᆷ이 어딜면 내죵ᄂᆡ 복녹이 겸젼ᄒᆞ여 영화로 누리고, 간악ᄒᆞ야 사ᄅᆞᆷ을 모해ᄒᆞ면 ᄌᆡ앙이 듕ᄒᆞ여 그ᄅᆞᆺ 죽ᄂᆞᆫ 거시 필연ᄒᆞᆫ 텬되라. 엇디 인력으로 ᄒᆞ리오. 이 듕의 가쇼로운 일도 잇고 비감ᄒᆞᆫ 일도 만흐므로 이리 긔록ᄒᆞ여 일홈을 비쇼긔라 ᄒᆞ니라."라는 내용이 그러한데, 이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이 권선징악적 요소라는 점과 비소기라는 제목이 정해진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낙질이지만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이 책이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1892년에 수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래는 온전한 한 질로 있었던 것이 도중에 앞 책이 일실되었거나, 혹은 동양문고에

다른 형태로 보존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책이 궁체로 쓰여 있다는 점에서 그 향유층도 궁실이나 그에 준하는 층위에 속한 상층 인물일 개연성이 높다.

6. 내용적 가치

본래 이런 유형의 소설은 전반부엔 가문의 외적 창달이 중심을 이루고, 후반부엔 가정의 내적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 책도 이런 틀을 준용했다고 할 만하다. 이 책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1권은 일실되었지만, 제2권의 내용만으로도 제1권의 내용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즉 제1권은 조실부모(早失父母)한 여주인공 윤소저의 고행담과 남주인공 운경의 출세담이 중심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둘의 결연담에 이어 운경이 첩 열경을 얻는 장면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권에는 가문을 창달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었을 터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권에 기초하여, 제2권에서는 주로 가정 내에서 처첩간의 갈등을 위주로 했다고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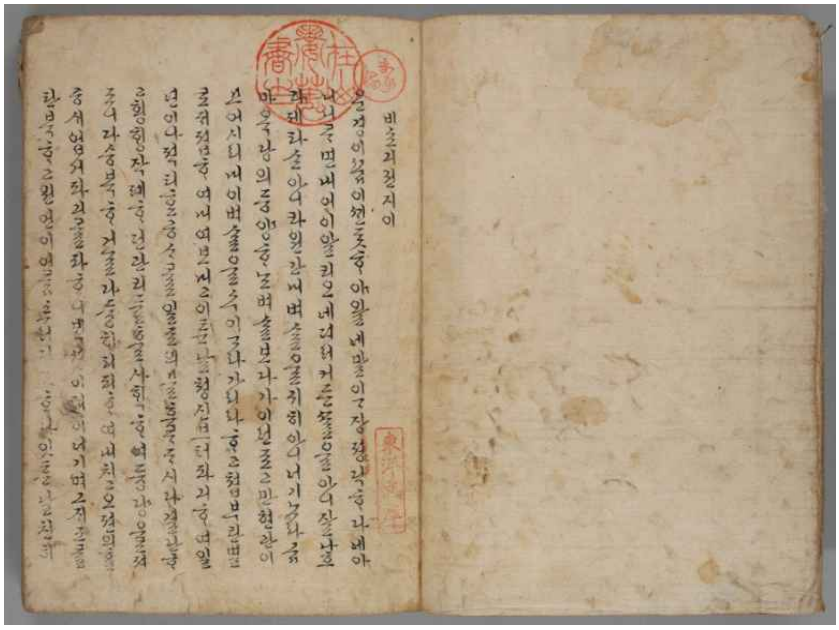
이 책은 18세기에 필사되었음이 거의 분명한데다, 그 내용 역시 초기 가문소설의 면모를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18세기 이후에 생산된 가문소설에서는 성리학적 이념을 맹종하는 교조적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것과 달리, 이 책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인 윤소저는 상당히 재기발랄한 면모를 보여준다. 게다가 정치적 이념 갈등이 아니라 부귀를 탐하다가 귀양을 가는 주인공의 부친 이야기라든가, 토끼가 길을 안내하는 삽화, 그대로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된 남편에 대한 여주인공의 원망, 양녀로 삼은 딸이 갑자기 사돈이 되는 형상 등은 우리 소설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화소들이다. 이런 내용은 18세기 이후에 생산된 가문소설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오히려 초기 가문소설의 분위기와 상통하는 내용들이다. 이 점에서 〈비소기〉는 자못 흥미롭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초기 가문소설들과도 정밀하며 긴밀한 관련성을 따질 필요가 있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1권이 빠진 낙질본임에도 고전소설사에서 〈비소기〉를 다시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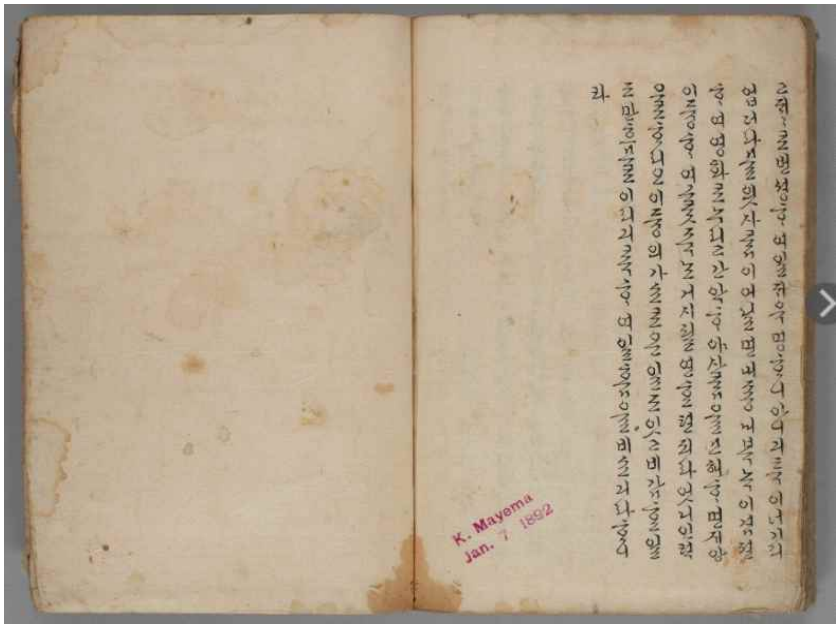
[그림 1] 앞표지



[그림 2] 뒤 표지



[그림 3] 권지이



[그림 4] 장서기